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고린도전서 12:31-13:13)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지만 성경을 숲을 보듯이 보면 13장 앞뒤의 12장과 14장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신실한 집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고린도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나 고린도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러저러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수신자로 답장을 쓴 게 바로 오늘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당시에 무역이 무척 활발했던 항구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북적거리고 그에 따라서 돈도 넘쳐나고 지혜도 넘쳐나고 종교도 넘쳐났습니다. 오가는 배를 통해 다채로운 문화와 철학도 함께 오고갔던 것이지요. 고린도교회 사람들도 그 지역의 지역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지 무척 뜨거운 교회였고, 또 활발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열정적인 선교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 그 사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무척 열심이였겠지요. 그런 고린도교회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받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8-10)

예수님의 승천 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각각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주시지만 그것은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는지요? 교회는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움직이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고린도 교회지만 성령의 은사들, 그 중에서 특히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에 고린도교회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아마 각자 받은 은사들을 놓고 서로 누가 더 크다고, 위대하다고 자랑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 전서12:1)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신령한 것들, 곧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가진 은사들은 모두 한 성령에서 오는 것이며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가진 교회 구성원 모두로 말미암아 교회의 몸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전 12:11)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12:27)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불품없는 지체나 아름다운 지체, 강한 지체나 약한 지체 모두가 하나이며 서로가 서로를 더 가치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끼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신경쓰이고 불편한 것처럼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우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한 약한 부분까지 다 제대로 기능하고 서로 화합할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전 12:23-25)

바울은 이렇게 분열되어있는 고린도교회에 각자 가진 은사가 다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전 12:31)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아마 눈 감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아름다운 사랑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장을 계속 따로 떼어놓고 암송해왔어서 그런지 12장을 읽다가 13장을 읽으면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타령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앞뒤는 너무 바울다운 논리적인 언어로 고린도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사랑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언뜻 보아도 앞뒤는 산문이고 사랑장은 운문체로 마치 시편처럼 칸이 많이 띄어져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오늘 본문을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굳이 12장의 마지막 절과 13장의 첫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받으신 은사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길을, 그 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니 이 사랑의 시가 너무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각종 은사를 놓고 뭐가 더 낫다, 내 은사가 크다 하고 서로 자랑하며 싸우던 고린도교회에 바울은 아무리 말씀을 천사의 말처럼 잘 전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위대한 예언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안빠지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그 신앙 참 좋다~ 해줍니다. 또 그런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구제 잘 하고 이웃들과 잘 나누어 쓰는 사람들은 완전 천사지요 아~ 저런 완벽한 신앙인이 있을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행함에도 사랑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그 성질을 묘사합니다. 이게 진짜 바울 사랑장의 핵심이지요.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을 보십시오. 물 달라, 고기 달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처럼 먼저 죄지은 사람들에 대해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감싸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동요가 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살다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처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시를 읽다보면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기란 참 쉽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네 번씩이나 반복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 결단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은 단지 자연스런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연애할 때

나 결혼할 때를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처음은 모든 게 다 좋아만 보이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참고,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어떤 이가 비록 지금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믿으면서 끝끝내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말해지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그 말이 너무 똥고 똥아서 너무 싸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손에는 잘 안잡히게 모호한 게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중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도로 가져와 파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제사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사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 음식을 먹고서는 마음이 깨름직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나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이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면서도 약한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가 다 좋고 다 구할만한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이며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전13:8-10)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길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사랑의 길을 걸으면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사랑장 마지막에 믿음, 소망과 사랑을 비교하여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그 때에 다 없어지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으뜸이라는 겁니다.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확고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함을 보면 그는 전혀 세상과의 타협 없이 그의 확고한 믿음에 따라서 살았고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없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암에 걸렸던 분들을 보면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그 증세가 호전되고 죽음을 넘어 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꺾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속에서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사랑보다는 믿음이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하여 바울은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으뜸이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는 걸까요?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그 내용으로 가집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 소망은 미래에 관련된 일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금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결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은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힘든 일입니다. 내가 숨쉬는 한 다른 사람과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삶 속에서 사랑하는 일이란 지속되는 나의 일상과 늘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하다가 그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있는데 사랑을 사모하는 일은 마치 숨을 쉬듯이 그침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깊이 할수록 나 자신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취리히 한소망교회를 열여덟 해 전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교회였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 모임인 ‘교회’에 대해,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사랑’에 대해, 다 폐해도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을, 사랑의 은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베른 한인교회, 그리고 취리히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완전한 사랑의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까지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의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님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에 힘입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이 사랑장에 사랑이라

는 단어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liebe’ 라는 단어는 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원형은 lieben, 사랑하다 라는 동사이지요.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이러한 표현은 사랑의 속성 같지만, 실은 그 표현들의 주체는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내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 온유해지는 것이지요. 사랑의 주체는 나 자신, 내 이름을 사랑의 자리에 넣어 결단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은 오래 참고 00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00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00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00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화 함께 기뻐하고 00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또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오래 참기 보다는 쉽게 성내고, 온유하기 보다는 잘못을 들춰내고 자주 화냈던 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옳으니 나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취리히한소망교회가, 베른한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로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은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